

문장 입력해 정보찾는 검색서비스 등장

문장을 넣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서비스가 나온다. 인터넷 전문업체인 지식발전소는 자연언어의 검색이 가능한 '엠파스(www.empas.com)'를 개발, 최근 오픈했다. 엠파스가 국내 최초로 지원하는 자연언어(Natural Language) 검색방식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장을 입력해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서비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이라는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엠파스는 질문의 내용을 분석, 정답에 해당될 만한 최적의 검색결과를 곧바로 보여준다. 폐쇄된 웹사이트를 검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엠파스만의 또 다른 특징. 엠파스는 디렉토리내의 웹사이트를 매일 체크해 3일동안 활동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데드링크(Dead Link)' 버튼을 붙였다가 15일간 지속되면 아예 디렉토리에서 삭제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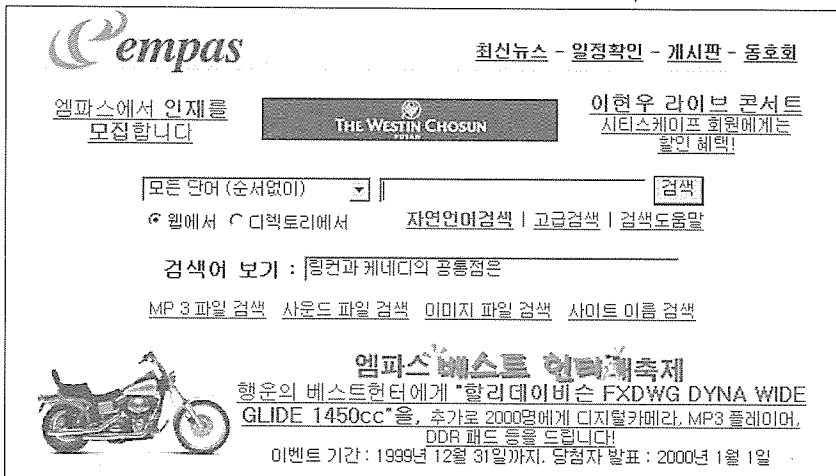
특히 네티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과 공식명칭이 달라 검색이 어려운 점을 고려, '사이트 이름 검색'이라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엠파스는 아직 홍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30만 페이지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사이버 분신 '아바타' 서비스 들쭉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나로 생활한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분신을 앞세워 온라인 채팅을 하거나 전자우편 검색을 하는 '아바타' 서비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아바타는 신이 인간이나 동물의 몸을 빌어 땅에 내려온다는 힌두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분신'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보통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지칭한다. 최근 가상현실(VR)이나 자바, 3차원 캐릭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바타는 '데스크탑 비서'나 '인터넷 채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아바타 활용분야는 데스크탑 비서. 인터넷 접속과 전자우편 관리, 화면보호 기능 등 네티즌이 데스크탑 PC를 사용할 때 필요한 기능을 아바타가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 벤처기업 아이코는 최근 국내 최초로 인기그룹 HOT와 남희석의 캐릭터를 이용한 데스크탑 비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티즌은 컴퓨터



Empas 최신투스 - 일정확인 - 게시판 - 동호회

엠파스에서 인재를 모집합니다 THE WESTIN CHOSUN 이현우 라이브 콘서트 사이트스케이프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

모든 단어 (순서없음) 검색

☞ 웹에서 ☞ 디렉토리에서 자연언어검색 | 고급검색 | 검색도움말

검색어 보기 : 링컨과 케네디의 공통점

MP3 파일 검색 사운드 파일 검색 이미지 파일 검색 사이트 이름 검색

엠파스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행운의 베스트헌터에게 "할리데이비슨 FXDWG DYNA WIDE GLIDE 1450cc"을, 추가로 2000명에게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DR 패드 등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첨자 발표 : 2000년 1월 1일

▲ 문장을 넣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엠파스 검색서비스

▶ HOT 사이버분신 남희석 사이버분신




를 이용하면서 스타 캐릭터 형태의 아바타가 모니터 화면에 등장해 인사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재미있는 장면을 즐길 수 있다. 또 아바타가 인터넷 접속과 전자우편 관리 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PC를 쓰지 않는 동안 화면 보호기 기능도 한다. 네티즌은 이 업체의 아바타 홈페이지(www.abata.co.kr)에서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설치하면 HOT 등 원하는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코 회사는 곧 아바타를 이용,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서비스와 남희석 등 스타 캐릭터가 컴퓨터 화면에서 재롱부리는 모습으로 상품광고를 하는 서비스도 구현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컴퓨터에서 아바타가 등장해 프로그램 이용법과 홈페이지 제작법 등을 설명해주는 '사이버 팻'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일본 하이코퍼레이션은 지난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추계 컴덱스에서 다양한 정보와 인터넷 광고를 아바타로 구현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 국내서는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아바타를 이용한 컴퓨터게임과 온라인 채팅 등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NC소프트의 '리니지'는 네티즌이 원하는 아바타 가운데 하나를 선택, 가상사회에서 각종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하늘사랑(www.skylove.co.kr)과 매직하우스(www.mhouse.net), 러브헌트(www.lovehunt.com), 챗팝(www.chatpop.com) 등이 아바타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코 회사 정진형사장은 "아바타는 향후 인공지능(AI)기술 등과 결합, 인터넷쇼핑이나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라며 "네티즌들은 머지않아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서 각각 자신을 나타내는 2개의 캐릭터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머니 은행 설립

'사이버머니(Cyber Money)도 이자를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받은 적립금 등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찾아 쓰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가상은행이 등장했다. 네티모아가 12월 중순 개설한 사이버머니 은행 '네티뱅크'(www.netibank.co.kr)가 바로 그 곳. 현재 대부분의 쇼

핑몰 사이트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제공하는 마일리지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현금처럼 쓰려면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하므로 실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네티뱅크는 이같은 문제점에 착안, 이용자들이 각 쇼핑몰에서 적립금 형태로 받은 사이버머니를 계좌이체해 모아두었다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이용할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것. 예치된 사이버머니(1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연 24%의 이자도 지급된다. 최근 들어 여러 쇼핑몰 업체들이 제휴, 통합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은 네티뱅크가 처음이다. 네티모아측은 가맹점들의 경우 '부채'로 쌓이는 적립금을 그때 그때 소화해 부담을 덜 수 있고, 네티즌들은 각 사이트에 분산된 적립금을 한데 모아 목돈을 만들어 쓸 수 있고, 자사는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티모아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지난달 초 독자적인 사이버머니 이체 및 실시간 인증·결제 시스템을 개발,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네티뱅크 가맹점으로 등록된 쇼핑몰은 MP3 파일을 판매하는 '렛츠뮤직'(www.letsmusic.co.kr), 중고서적 쇼핑몰 '꾸제'(www.kkooje.co.kr), 각종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등 6곳이다. 네티모아는 이밖에 10여곳과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우수 쇼핑몰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테스트 메인으로 들어가기 회원가입 사이버쇼핑</p>	
<p>NetiBank소개 마이오프나 회원 가입/로그인 @MONEY 통장/이체 NetiBank 안내 커뮤니티 쇼핑몰 제휴사 평가 NetiBank 안내 제휴/광고 정보 수정 거래 내역 정보 NetiBank 해설서</p>	<p>NetiBank Vision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적립된 사이버머니가 있습니까? "여러 커뮤니티에서 받은 사이버머니를 통합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티뱅크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로 네티즌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p> <p>NetiBank News 1. 사이버머니 뱅킹 시스템 서비스 준비중 2. 쇼핑몰 제휴 및 커뮤니티 가맹점 모집중 3. 전자 신문 기사 및 광고 홍보 중</p>

국내 최초로 이자를 주는 사이버머니 은행 네티뱅크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 붐

통신업계 '데이터센터' 대형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산시설을 갖추고 기업들의 서버(Server·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대형 컴퓨터) 또는 통신 관련 장비를 옮겨다놓거나 자체 장비를 임대해



데이콤에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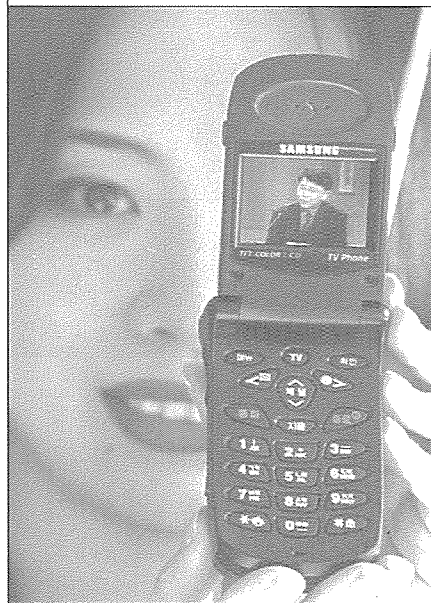
운영과 유지·보수를 대행해주는 곳. 이를 이용하면 기업들은 전산업무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보안면에서도 훨씬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체 전산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도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어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는 이같은 전산관리대행업이 연평균 9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2003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2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데이콤, 아이네트, 한국통신 등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대대적인 시설 확충에 나섰다. 드림라인 등 후발 주자들도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데이콤은 강남구 논현동 옛 한빛은행 전산실 건물에 12월 초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를 오픈했다. '인터넷 서버호텔'이라는 별칭이 붙은 센터는 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8천5백여평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 데이콤은 이미 대신증권, LG증권, 야후코리아, 한국일보, 인텔, 싱가포르텔레콤, 울티마온라인 등 국내외 50여개 업체를 유치했다. 데이콤은 앞으로 해외 사업자들을 적극 유치해 이 센터를 아시아지역의 인터넷 '허브'(Hub)로 키우고, 내년 하반기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네트는 앞서 7월 초 강남구 역삼동 본사 건물에 3백여평 규모의 '인터넷 호스팅센터'를 개설, 네띠앙 등 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강남지역의 10층짜리 건물(연면적 3천여평)을 사들여 내년 초 데이터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현재 해화전화국에 인터넷 호스팅 및 텔레하우징(통신관련 장비 유치 또는 임대) 시설을 갖추고, 대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2000년 초반 4천여평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개설하고, 2002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여의도와 강남 신규청사에도 총 1만평 규모의 호스팅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 한국통신 관계자는 "서버와 통신장비 관리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사업(ASP)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드림라인도 최근 컴팩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데이터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다. 우선 잠실지역의 건물을 임대해 2000년 2월 '인터넷비즈니스센터'를 개설하고, 현재 신축중인 사옥이 완공되는 2001년에는 이 센터를 사옥내로 옮겨 7천5백평 규모로 확장키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붐을 타고 전산관리대행 시장의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대폰으로 TV시청 TV폰 세계 첫 개발

'휴대폰으로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삼성전자는 폴더형 휴대폰에 초소형 TV 수신기를 내장해 통화는 물론 TV까지 시청할 수 있는 TV폰을 세계 최초로 개발, 2000



년 초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이 휴대폰은 TV시청을 위한 전용 버튼을 휴대폰 번호판 상단에 부착, TV버튼을 누르면 바로 TV를 시청할 수 있고 시청 도중 전화가 걸려오면 아무 버튼이나 누

통화는 물론 TV까지 시청할 수 있는 TV폰 (모델명: SCH-220)

러 통화로 연결할 수 있다. 1.8인치 고선명 컬러 액정화면(TFT-LCD)을 탑재해 선명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으며 주파수가 다른 TV신호와 휴대폰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고성능 안테나를 채용했다. 또 TV수신기 등 많은 부품을 탑재하고도 제품크기를 기존 폴더형 수준(길이 92mm, 폭 51mm, 두께 36mm)으로 최소화했다.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할 경우 최대 연속통화 1백70분, 연속대기 1백80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TV는 최대 2백분까지 시청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수출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워치폰, 인터넷폰, MP3폰 등 복합폰을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TV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인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복합제품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수집가 겨냥 온라인 화랑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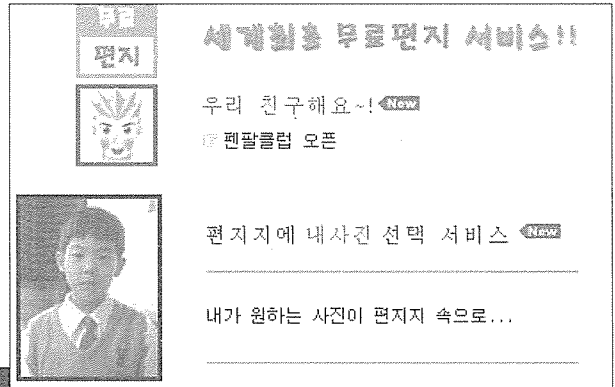
국내 화가들이 해외에서 전시회를 마련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가 된 요즘엔 그리 힘든 일만도 아니다. 최근 인터넷에 문을 연 ‘주디 갤러리 (www.judigallery.com)’는 외국인 수집가를 겨냥한 온라인 갤러리다. 국내 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이 사이트의 주 목적. 이미 장순엽, 전준엽, 이민정 등 국내 화가들이 주디 갤러리를 통해 그림판매를 의뢰한 상태다. 이 사이트는 무엇보다 한국 미술사 메뉴를 별도로 구성해 외국인들에게 한국미술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미술사는 물론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한국 미술품이 소장된 갤러리와



박물관사이트와도 연계돼 있다. 조만간 한국미술 전문검색 엔진을 구축, 한국미술에 관한 효과적인 정보찾기를 도와 줄 계획이다. 현재 영어와 불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편지를 진짜편지로 배달해준다

E메일은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인터넷에 익숙치 않거나 아예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낼 수 없는 것이 최대 단점.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께 새해 안부편지를 할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불편을 없애주는 인터넷서비스가 나와 네티즌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 아이레터는 E메일이 없는 부모님이나 친지들에게 유용하다

◀ 국내 작가들과 해외 바이어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이버화랑 주디 갤러리의 작가들

있다. ‘아이레터’ (www.iletter.co.kr)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편지를 쓴 뒤 받는 사람 주소와 편지양식을 선택하면 이를 인쇄해 우체국을 통해 보내준다. 사진이나 그림파일을 보내면 편지에 곁들일 수 있다. 우표값 등 모든 비용은 무료다. 실제 우체국을 통해 편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자신의 E-메일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다. 아직 외국에는 비용부담 때문에 보낼 수 없고 국내에는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뱅크커뮤니케이션은 “이 서비스는 편지봉투에 기업광고를 넣기 때문에 이용자들 대신 편지발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④